해남군 '로컬푸드 정책' 효과 만점

직매장·급식센터 누적 매출 200억
먹거리통합지원센터 4년만의 성과
먹거리 선순환…농가 소득 향상

해남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가 통합 누적 매출 200억원을 올렸다. 해남 로컬푸드 직매장. 〈해남군 제공〉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가 통합 누적 매출 200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된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해 4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이룬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2020년 임시 매장에서 시작해 2021년 정식 개장했다. 초기 104농가, 210품목으로 출발했으나 현재 652농가, 801품목까지 확대됐다. 매출은 120억원에 이르고 있다.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도 같은 기간 8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인근에 대도시가 없는 불리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대규모 매출 증진은 중·소농들과 함께 미래 농어촌 혁신 비전을 담은 '농어촌 수도, 해남'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해남군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중·소농가의 소득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월급을 받는 농업인으로 만족도도 높아졌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이후 45만명의 소비자가 이용하였고, 어린이집과 학교 등 56개소를 비롯해 해남교도소, 대한조선, 롯데아울렛, 순천·진도 지역 등으로 해남산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민선 7~8기에 꾸준히 추진된 지역 먹거리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해남 농어업의 온·오프라인 역량이 총결집되어 '농어촌 수도, 해남'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제2차 지역먹거리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신선하고 안전한 해남산 농산물 공급과 먹거리 복지를 선도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급식물류센터) 건립 ▲기획생산 및 농가 조직 고도화 ▲광역 지자체와의 MOU 체결을 통한 공급망 확대 ▲로컬푸드 군수 인증제 활성화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시스템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짧은 기간에 직매장과 급식센터 누적 매출 200억원 달성은 농어업 1번지 해남의 위상을 높이고 농어촌수도 해남의 역량을 대내외에 보여준 결과"라며"건강한 청정 먹거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국민들의 안전 먹거리를 책임지고 생산·판매하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군, 소외 이웃과 '온기 나눔'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협약…복지시설 등 생필품 지원

무안군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회장 김정안)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일 열린 협약식에는 김산 무안군수와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김동우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앞으로 양 기관은 관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다양한 생필품을 지속해서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후원 물품 지원 및 희망 나눔 장학사업 등을 통해 나눔과 연대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식 자리에서 김동우 부회장은 "무안군과 함께 나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온기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군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보내주신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따뜻한 무안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신안군 '공영 장례' 정부혁신 첫 인증패

무연고·저소득층 장례 서비스…복지 사각 해소 기여

신안군의 '공영 장례'가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신안군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에서 '공영 장례'가 전국 최초 인증패를 받았다. 〈사진〉

신안군은 지난 2007년 5월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이 사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공영 장례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공영 장례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등 장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한 혁신 사례 중 '최초'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정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신안군이 도입한 '공영 장례' 제도는 전국으로 확산돼 현재 15개 광역자치단체와 217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운영하고 있으며 장례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잡았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군,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실태조사

40세 이상 65세 미만 대상 30일까지 직접 방문

영광군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영광군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거 형태, 1인 가구 사유, 위험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고독사 위험군 판단 도구를 활용해 고독사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와 병행해 진행되며,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이장,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이 참여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주소 이전이 되지 않았거나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이 예상되는 가구는 공무원이 2인 1조로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파악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상담, 지역 자원 연계, 정기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조사 대상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할 방침"이라며 "1인 가구라는 이유만으로 문제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과 고독사 예방,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

영암군, 대봉감 박스당 최대 1만원 장려금

금정농협과 상생 협약…물량 부족 해소·가격 불안정 완화

영암군이 대봉감 농가소득 보전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금정농협과 '대봉감 공동 출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영암군과 금정농협이 각각 50%씩 부담해 수매 대봉감 20㎏ 박스당 최대 1만원의 장려금을 농가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산지인 금정면의 올해 대봉감 착과량은 지난 3~4월 이상기후와 6월 낙과로 2024년과 비교해 약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 기관은 수확 전 밭떼기 판매인 '포전매매'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막고 수급 물량 부족 해소, 가격 불안정 완화 등으로 농가가 합리적 가격에 대봉감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최진석 영암군 산림휴양과장은 "이상기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대봉감 농가를 돕기 위해 금정농협과 함께 협약식을 마련했다"면서 "대봉감 농가 지원과 유통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목포 북항, 축제로 물들다

내일 노을공원 바닥 분수 일원 '노을축제'

'2025 북항노을축제'가 6일 목포시 북항노을공원 바닥분수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는 '바다와 노을이 만드는 빛나는 하모니'를 주제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로 기획됐다. 올해는 어린이 물놀이장이 새롭게 운영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후 5시부터는 공원 소무대에서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된다. 풍물패 아라리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퓨전난타, 댄스, 클래식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진다. 주민이 참여하는 노래자랑과 축제의 열기를 더할 EDM 댄스파티까지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정순양 북항동장은 "올해 축제는 바다와 노을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주민들이 하나 되어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새롭게 운영되는 어린이 물놀이장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북항노을축제추진위원회 김바다 위원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두가 즐겁고 오래 기억에 남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